

“손짓 대화하며 하나임을 느낍니다”

바라밀현장

원심회의 ‘수화포교’

“반드시 실력을 충분히 쌓은 후 수화를 써야 해요. 어설픈게 사용하면 청각장애인들이 큰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10일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내 지하1층에 위치한 원심회(회장 덕신스님) 법당에서는 제 42기 수화 초급반 강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수강생은 열명 남짓하지만, 덕신스님(성남 장경사)은 장애인 현황과 그들에 대한 포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수화교육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스님의 인사말이 끝나자 강사인 김동숙(37) 수화통역사의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는 지화(指話) 강의가 시작된다. 권정에(30) 보조강사와 함께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팔을 내밀었다 하면서 수강생과 함께 숫자 지화를 익힌다. 이어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 대한 지화도 차근차근 가르친다. 처음엔 다소 헛갈리면서도 다들 즐거운 표정이다.

원심회가 1988년 7월 수화 기초교육을 시작한 이래 배출한 수강생은 모두 831명, 대부분 수료와 동시에 후원자로서 회원이 되지만 직접 자원봉사를 하는 회원들은 50여명이다. 이밖에 청각 및 시각장애인 30여명은 매주 조계사에서 장애인법회를 보고 있다.

법음전파, 편견해소, 공감대형성 위해 정진

불교수화, 점역경전 보급등 장애인포교 앞장



◇원심회 회원인 김동숙(오른쪽)·권정에 회원이 수강생들에게 ‘숫자 지화’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100만 여명. 하지만 비등록자를 포함한 UN의 집계로는 400만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불자는 4%·90%정도는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고 하니 장애인 포교의 열악함을 말할 나위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15년간이나 장애인들과 함께 희로

애락을 함께 한 불자모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가운 일이다. 원심회는 그동안 꾸준히 활동을 펼쳐 오름가는 장애인 포교단체로 자리 잡았지만 슬픈 난관이 있었다. 재정난 등 물질적인 난관이 컸으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원심회 강경미(23) 간사는 가장 어려웠던 점이 비장애인들의 “그릇된 인식”이었다고 말한다.

“누구나 한 순간의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예비 장애인’ 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애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물질보다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길 원하죠.”

이런 나눔의 마음으로 원심회는 장애인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하는 동시에 비장애인인과 장애인간의 편견 해소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진해 왔다. 대외적인 수화통역봉사와 수화강사 파견과 함께 <불교수화 용어집>과 자막 비디오 테이프를 발간하고 점자부(부장 박규락)를 개설하면서 <아미타경>과 <법화경> <천수경> 등의 컴퓨터 점역 경전도 보급하고 있다. 수시로 사경법회, 참회법회, 수계법회, 수화공연 등도 열어 장애인들이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 나도록 돕고 있다.

원심회는 특히 지난해 한글대장경 316권 완역을 계기로 한글대장경 등 녹음본서 제작, 점자본서 출판을 위한 자원봉사 입력 작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점자 경전을 점자도서관 등에 보급하고 청각,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불서 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95년부터 점자본서 발간을 주도해 온 시각장애인 이연주(32, 마포점자도서관 실장) 회원은 “비장애인을 전제로 한 한글대장경 전산자료의 공유와 점자책 권당 60만원(인력비, 교정비, 점역비 등)이 소요되는 경비 마련이 관건이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02)720-4528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지유 케넷 선사 (上)

서구형 선불교 ‘불교명상종’ 창종

서구에 맞는 선불교를 전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한 영국의 지유 케넷(1924~1996) 스님은 1962년부터 일본 조동종 본산 총지사 방장 고호 스님 문하에서 공부한 후 견성을 인가받았다.

비구니계를 받고 일본의 한 절에서 주지 소임도 맡았던 스님은 비구니로서의 포교에 한계를 느끼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스타수도원을 설립, 서구형 선불교인 불교명상종을 창립했다. 서구인 문화에 맞게 영어로 독경하고 영어 법명을 수여하는 등 독자적인 선불교를 가르친 것이다. 예를 들면 독경할 때 영어 경전을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음악에 맞춰 읽고, 스님들의 법명은 낯선 일본 이름이 아니라 고풍스런 영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식이다.

지유 스님은 자신의 목조선(默照禪) 수행과 견성 체험을 <사자후(Roar of the Tigris)> 등 몇권의 저서로 집필해 선불교 포교에 큰 역할을 했다.

1924년 페기 케넷(Peggy Kennet)이란 이름으로 영국에서 태어난 지유 스

심지어 비구승들의 짓곳은 장난도 많았는데, 어느 날 총지사의 뜰에서 한 스님이 지유 스님의 머리에 사마귀를 올려 놓은 적이 있었다. 깜짝 놀라거나 울음을 터트릴 것으로 예상했던 비구승은 오히려 실망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던 까닭이라고 한다. 지유 스님은 저서 <사자후>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조심스레 그 사마귀를 잡고 머리에서 떼어 놓았는데, 사마귀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황금빛 광채를 보고 절로 탄성이 나왔습니다. 사마귀를 내려 놓은 황금빛의 풀잎 역시 마찬가지로 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가요!”

지유 스님은 총지사의 고호 방장 스님이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제자로 받



◇지유 케넷 선사

조동종 사찰서

목조선 매진

영어독경·법명수여 등

독자적 가르침 펴

님은 어린 시절 <아시아의 등불(The Light of Asia)>이란 책을 통해 처음 불교를 접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행을 하게 된 것은 30세가 되어서였다. 54년 영국불교회에 가입한 그녀는 곧 이어 강사가 되었고, 4년만에 관리위원이 되었다. 이 때 정진하다 만난 고승이 일본 조동종의 고호 선사였다.

그러나 지유 스님이 일본에 가서 수행하기 시작한 62년은 아직 불교가 서구에서 발전하지 않은 때였으며, 조동종의 본산이 총지사에서도 외국인 수행자는 드문 형편이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비구승 밖에 없는 절에 외국인 여성이 출가했으니 자연 놀림과 외면,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지유 스님은 구도의 길에서 힘이 되어줄 도반의 부재와 주변의 무시라는 이중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깨달고자 말겠다는 발심 하나로 정진해 이런 역경이 오히려 수행의 밑거름이 되었다.

김재경 기자



원심회 김장경 부회장

15년간 수화포교 저변확대

“모든 스님들이 목사님들처럼 수화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원심회가 창립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포교에 대한 관심은 나아진 게 없어

아쉬워요.”

김장경(36, 컴퓨터 수리업) 부회장은 창립이후 장애인 포교에 대한 종단과 스님들의 무관심은 서운하지만, 그나마 원심회가 꾸준히 수화 교육생들을 배출하고 장애인법회를 개최하는 등 저변확대에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불교계의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은 장애인의

즐거움을 금지한 제도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진정한 대승불교라면 소외받는 이들을 외면해선 안되지요.”

김 부회장은 불교계가 이런 정서를 개선하는 한편, 100만 장애인 가운데 4%에 불과한 불자 포교의 현황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며 스님들의 관심을 거듭 호소했다.

옛그제 아침 TV 프로그램에 마련이 넘었음에도 코미디언의 꿈을 버리지 못한 채 현실과 갈등하는 한 여성의 모습이 그 가족들과 함께 방영되었다. 유명해지고 안해지고는 나중 문제고 어엿한 코미디언이 되어 자기가 지닌 기량을 한번만이라도 세상에 내보일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가족들의 반대나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함께 출연한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은 막무가내였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가 현실을 망각한 채 주제도 모르고 다른 일도 아닌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

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 그녀와 가족들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자기들 입장만을 고수했고 그녀는 급기야 원망의 눈물을 흘렸다. 방영도중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찬반의견에는 그녀가 꿈을 포기하는 것이

心 마음비추기

올다는 의견이 월등히 많았는데, 지켜보자니 안쓰러운 마음까지 생길 정도였다. 이럴 경우 과연 부처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셨을까? 코미디언이 되겠다는 당사자의

손을 들어주고 가족들의 협조를 구하셨을까, 아니면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녀의 마음을 돌리게 하셨을까, 그도 아니면 양쪽의 의견이 다 맞다고 하셨을까.

하지만 아무래도 부처님께서는

욕망으로 스스로는 물론 많은 사람 욕망까지도 혼란에 빠져있고 상처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에 있느냐. 세상에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서 즐거워하

어머니인 저 여인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지 못해 큰 괴로움에 빠져있지 않느냐. 저 여인을 향해 자기 욕심만 부린다고 나무라지만 그대들도 똑같이 욕심에 치우쳐 있는 줄 왜 모르느냐.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붙잡아매고 다스리려 하는 것은 서로간에 고통만을 키울 뿐이니까.” 하셨을 것이다.

부처님은 늘 중생의 마음 가운데 들 어있는 아집을 보게 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게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남의 욕심은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자기 욕심은 한번 돌아보는 것이 행복의 또 다른 방향일 수 있다.

적연(유마선원장)

배려·성찰은 또다른 행복의 길

양쪽 모두를 향해 훈계를 하셨으리라 짐작된다.

먼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여인을 향해서는 “여인이여, 무릇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까닭은 욕망과 집착 때문이니까. 그대 하나의

는 길도 있고 그 욕망을 포기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길도 있느냐.” 하셨을 것 같다.

또한 가족들을 향해서는 “여인의 가족들이여, 사랑은 희생의 필 요로 하느니라. 그대들의 아내며

韓國佛教 海東宗 創立 5週年 紀念 大法會

인사 말씀

귀의 삼보하옵니다
교계 스님, 종도님, 불자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기를 합장 발원 하옵니다.
금번 저희 한국불교 해동종에서는 아래와 같이 창립 5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코져 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증 명 : 종정 경우
- 봉행 위원장 : 혜 우
- 봉행 부위원장 : 대 법
- 봉행위원 (무순)

보각 도일 정일 도월 천강 현덕 진수
법현 지원 도심 인묵 도법 도승 혜월
화도 정안 도일 혜경 일심 도원 불선
덕화 도관 보련 혜광 자당 정운 혜명
혜화 해인 해심 해월 해관 호심 해선
도일 비경 도월 천우 혜정 자인

한국불교 해동종 종도 일동

아 래

- 일 시 : 불기 2547년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충북 충주시 목행동 이화예식장 별관
- 주 관 : 한국불교 해동종 총무원
- 문 의 : 043-853-2855

韓國佛教 海東宗

대한불교종단진흥회



2003년 3월 7일 대한불교종단진흥회 회장이시며 (사)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혜定스님께서는 종단진흥회 癸未年 첫 임시회의에서 부회장은 법사종 원덕 총무원장, 해동종 송산 원장, 운영 위원장에 정토종 회암 원장, 홍보 위원장에는 조계율종 혜인 원장, 사무총장에는 미륵종 송정 총무원장을 각각 임명하셨습니다.

대한불교종단진흥회 임원 공고

직 위	법 명	종 단
회 장	能虛堂 金慧定	(사)대한불교 일승종 총무원장
부 회 장	圓德 成順慶	통일불교 법사종 총무원장
부 회 장	東海 李松山	(사)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운영 위원장	秀峰 鄭回俺	한국불교 정토종 총무원장
홍보 위원장	孫 慧 印	대한불교 조계율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滿岩 尹松亭	(사)한국불교 미륵종 총무원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번지
전화 : (02)3446-1819 팩스 : (02)511-2028